

한국 중년 남녀의 '중간세대' 지위 경험의 보편성 탐색 연구

한 경 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 정 화 (한경대 교양과 강사)

위로는 노부모, 아래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중년기를 Brody(1985)가 '중간세대'(sandwich generation)라고 개념화한 이래로, 중년기의 다중책임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 개념이 자주 인용되어 왔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중년기, 노년기에도 부모들이 생존하는 확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족부양책임을 과중해 지는 현상을 압축하여 잘 표현해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Watkins 등(1987)은 미국여성의 생애과정에서 18세 이하 자녀와 65세 이상의 양부모를 동시에 가지는 기간이 1800년 여성에 비하여 1980년에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간세대'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막내자녀를 과거보다 일찍 진수시키며, 65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이나 의존성의 정도가 과거와 달라져서 실제로 부양,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 세대에 대한 부양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중간세대 지위의 경험은 그렇게 보편적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이 개념의 보편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인 사망률의 감소로 3, 4세대가 동시에 생존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할 중년세대의 다중역할 부담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의 중년층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중간세대'인가에 대한 실증적 탐색작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35-59세 중년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년남녀에게 있어 '중간세대' 지위가 얼마나 보편적 경험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때 '중간세대'는 인구학적 의미와 가족부양 책임 측면의 두가지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인구학적 의미의 중간세대는 65세 이상 생존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동시에 가지는가 여부로 측정하였다. 가족부양책임 측면의 중간세대는 18세 이하의 동거자녀와 건강,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를 동시에 가지는가 여부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가족 연구에서의 중간세대 개념의 적용 가능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